

# 조선업계, '해양플랜트' 힘 신는다 美·브라질 등 글로벌 수주 본격화

한화오션 에너지기업 점점 확대  
HD한국조선해양 매출 183% ↑  
삼성중 수주목표 82억달러 설정

과거 대규모 적자의 원흉이었던 해양플랜트 사업이 국내 조선업계의 실적 반등을 이끌 동력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해양 부문 수익성이 확인된 데 이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최종투자결정(FID)이 가시화하면서 한동안 멈춰있던 발주 사이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 조선해양 컨퍼런스(OTC) 2026'에 참가해 NOV, 커먼웰스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접촉하며 해양플랜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싱가포르 상부구조물 업체 인수와 에너지플랜트 유닛(EPU) 신설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 한화오션은 오는 2027년 이후 2년마다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3기를 건조하는 체제로 확대하며 사업 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수치상으로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곳은 HD한국조선해양이다. 올해 1분기 해양플랜트 부문 매출 4578억원, 영업이익 8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3.8%, 1212.1% 증가했다. 이는 멕시코 트리온(Trion) FPU와 중동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

루야(Ruya) 프로젝트의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인식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중공업 역시 올해 해양 부문 수주 목표를 82억 달러로 설정하고, FID가 임박한 델핀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등 대형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를 정조준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ZLNG, 캐나다 시더 등 FLNG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삼성중공업은 이월 물량과 신규 발주를 포함해 총 4기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해양플랜트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겼다. 지난 2014년 국제 유가 급락으로 발주가 끊기고 프로젝트 취소와 인도 지연이 겹치면서 손실이 크게 불어났다. 통상 해양플랜트의 손익분기점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보고 있다.

최근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중단됐던 심해 유전 개발이

재개되며 흐름은 반전됐다. 브라질·가이나·수리남 등 남미를 중심으로 FPSO와 FLNG 발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는 글로벌 해양 석유·가스 장비 시장이 지난해 950억3000만달러에서 오는 2035년 1425억7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사들은 과거의 저가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 위주의 선별 수주로 전략을 전환했다. 동시에 유사 프로젝트를 반복 수행하며 설계와 공정 관리 역량을 축적해 실행 리스크를 낮추고 있다.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채굴부터 하역까지 수행하는 복합 시스템인 FPSO와 FLNG는 적당 최고 4조 원에 달하는 초고가 설비다. 좁은 해상 공간에 대규모 플랜트를 구현하는 설계·제작 역량은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어 향후 수주 경쟁에서도 고지를 점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도 지연과 설계 변경 등 리스크 관리에 취약했으나, 최근에는 고부가 프로젝트들이 정상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구조로 체질이 개선됐다"며 "글로벌 투자가 지속될 경우 해양 부문의 수익성 개선 속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 9조 '샤힌 프로젝트' 완공 임박 석화업계, 구조재편 선행 복잡

울산 NCC 감산·설비통합 논의 제자리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공급 과잉 해소 위한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울산은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산과 설비 통합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에스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완공을 앞두고 신규 공급 부담이 커진 데다 주요 업체별 원료 조달 방식과 생산 구조가 달라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는 오는 6월 말 기계적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에스오일은 올해 하반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 초 상업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스오일이 9조원 이상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대 규모 투자 사업이다.

대규모 신규 설비 가동을 앞두고

울산 지역 구조 재편 논의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울산은 에스오일과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등 주요 업체들이 각각 독립적인 원료 조달·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대산·여수처럼 합작회사 설립이나 설비 통합 방식의 감산 논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 수익성 개선도 구조 재편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란 전쟁 이후 원재료와 제품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저가 원재료 투입에 따른 레깅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당장 설비 감축이나 통합에 나설 유인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울산은 에스오일과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의 원료 조달과 생산 구조가 달라 한쪽이 먼저 설비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현대차그룹, 하반기 자율주행 기술 실증

국토부, 광주시 등 업무협약 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성장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사업에 나선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실제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주행 데이터를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를 공개하며 기술 신뢰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도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당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테슬라 등 글로벌 업체들과 치열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삼성화재,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라이드플렉스 등과 함께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그간 축적된 자율주행 역량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 광주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시작하며 해당 차량에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설루션 '아트리아 AI'가 탑재된다.

/양성운 기자

다양한 도로 조건을 갖춘 광주 내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민간이 축적해 온 자율주행 기술이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협약에 참여한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자율주행 팀'이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규모 차량 운영과 데이터 수집,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실증 사업은 올해 하반기 광주 광산구, 북구, 서구 일부 지역 등에서 수행된다. 내년 중에는 서구 남은 지역과 남구, 동구까지 지역을 넓혀 광주 내 5개 기초구 전역에서 이뤄진다.

현대차·기아는 아트리아 AI와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셔클을 기존 양산차에 적용한 자율주행 차량을 200여 대 제작해 실증 차량으로 내놓는다.

공공부문에선 국토교통부가 사업 총괄을 맡아 자율주행 관련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광주광역시는 기업 상주 공간, 차고지, 충전설비 설치 등 실증 인프라 지원을 맡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 지원과 기술 검증 성과를 확인한다.

# 기아, 日 전동화 시장 도전... 'PBV' 전면에

(목적기반모빌리티)

PV5 출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고객 니즈에 맞춰 장기적 신뢰 구축"

기아가 첫 전용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모델 'PV5'를 앞세워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난 1992년 일본 시장에 진출해 2013년 '기아 재팬'을 청산한지 13년만에 재도전이다. 또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앞세워 일본 승용 전기차 시장에 재진입한 것과 달리, 기아는 첫 전용 PBV 모델인 PV5를 앞세워 업무용 전동화 시장을 공략한다.

기아는 13일 일본 도쿄 기아 PBV 재팬 도쿄니시 직영점에서 '기아 PV5 일본 시장 공식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김상대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 타지마 야스나리 기아 PBV 재팬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부사장은 "기아의 상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일본 고객 니즈에 맞춰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전동화 전환을 지원하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는 일본에서 중소형 EV 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실제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탄소 중립 정책을 내놨다.

기아는 차량의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



김상대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왼쪽)과 타지마 야스나리 기아 PBV 재팬 대표이사가 13일 일본 도쿄 기아 PBV 재팬 도쿄니시 직영점에서 'PV5 일본 시장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각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차량 구조와 첨단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PV5는 차체, 도어, 테일게이트 등 주요 부품을 모듈화한 '플렉서블 바디 시스템'이 적용돼 비즈니스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회전반경 5.5m로 일본의 좁은 도로 환경에 적합하다.

전기차 특화 사양인 V2L(외부전력공급)과 V2H(가정전력공급)를 지원해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 전력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PV5는 선택권이 제한적인 일본 전동화 상용차 시장에서 새로

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는 PV5패시저와 카고 모델을 선보인 뒤 PV5 WAV(휠체어 탑재 가능 차량)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아는 일본의 유력 종합상사 소지츠와 협력해 현지 유통망을 구축했다. 양사는 지난해 4월 일본 내 PBV 사업 전개를 위한 소지츠 100% 출자의 신규 법인 '기아 PBV 재팬'을 출범했다. 기아 PBV 재팬은 현재 도쿄니시 직영점을 포함해 총 7개소의 딜러샵과 52개소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내 딜러샵 11개소와 서비스센터 100개소 체제를 구축하고 정비, 금융, 충전 인프라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 SK이노, 1분기 흑자전환... 영업이익 2.1조

직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632% ↑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4조2121억원, 영업이익 2조1622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조655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직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3.1%, 영업이익은 632.0% 늘었다.

이번 실적 개선은 유가 상승기에 과거 낮은 가격에 들어온 원유가 시차를 두고 원가에 반영되면서 정유사업 수익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유 도입과 석유제품 판매 사이에는 운송·

저장·정제 과정에서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는데 유가가 급등할 경우 제품 판매 가격은 빠르게 오르는 반면 원가에는 이전에 매입한 원유 가격이 반영돼 레깅 효과가 나타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유가 상승에 따른 레깅 효과 반영과 재고 관련 이익 증가로 정유사업을 영위하는 SK에너지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며 "다만 레깅 효과와 재고 관련 이익은 회계상 반영되는 숫자로 향후 유가 하락 시 줄어들거나 소멸될 수 있는 일시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